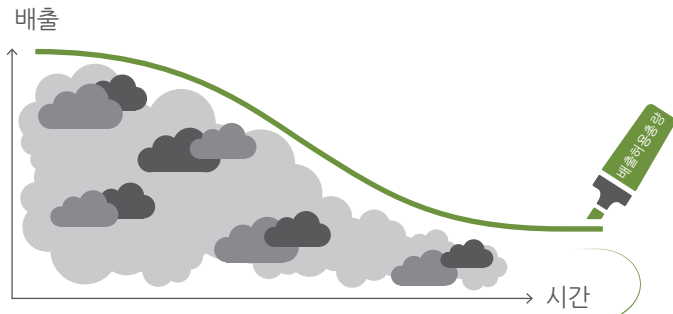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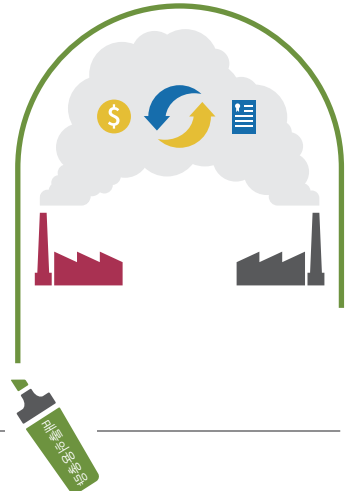


배출권거래제란?

배출권거래제(ETS)는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을 위한 시장기반 정책수단이다. 본 제도는 일반적으로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 원칙에 기초해 운영된다. 정부가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배출허용총량(cap)을 설정하면, 대상 기업체는 정해진 배출허용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즉 배출권(permit)을 부여 받게 된다. 배출권은 정부로부터 할당 받거나 구매할 수 있으며, 대상 기업체들 간에 거래(trade)할 수 있다. 이 전 과정을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라 일컫는다.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 출범을 준비 중인 중국을 포함해 현재 17개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의 40%를 점유하는 국가들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출허용총량이란?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허용가능한 총 배출량을 정하는데, 이를 배출허용총량(cap)이라 일컫는다. 배출허용총량은 제도 시행 전에 확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또한 국가 감축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시장에 바람직한 정책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대상 기업들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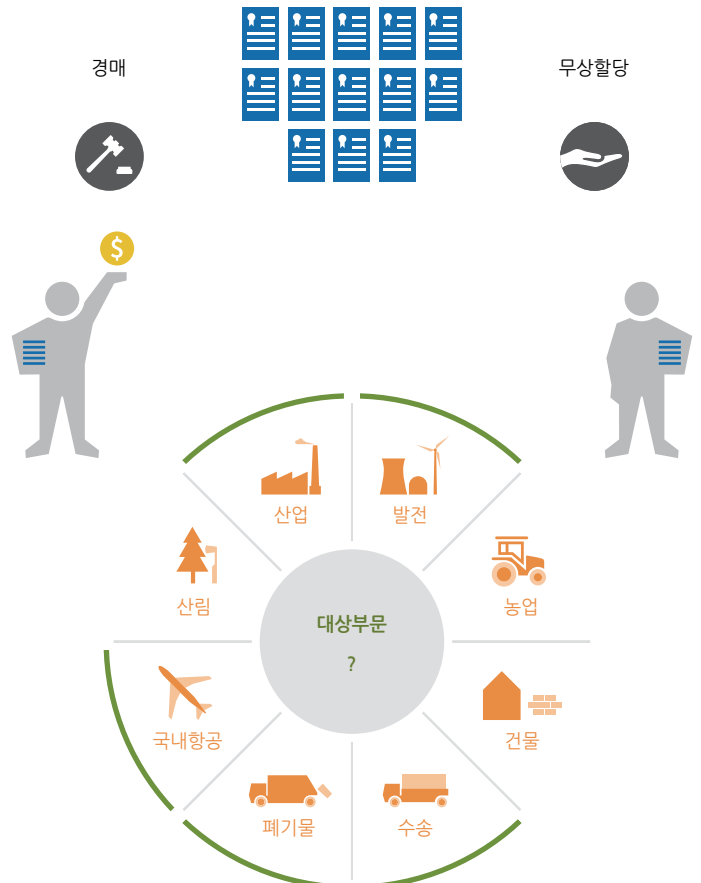
캡=배출허용총량

배출권은 어떻게 할당하나?

배출허용총량이 정해지면, 정부는 기업간에 거래 가능한 배출권을 할당하게 된다. 한 단위 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량 1톤을 의미한다. 정부는 과거배출량 또는 배출성과 기준으로 배출권을 무상할당할 것인지 혹은 경매를 통해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배출권의 할당방식은 기업의 배출량 관리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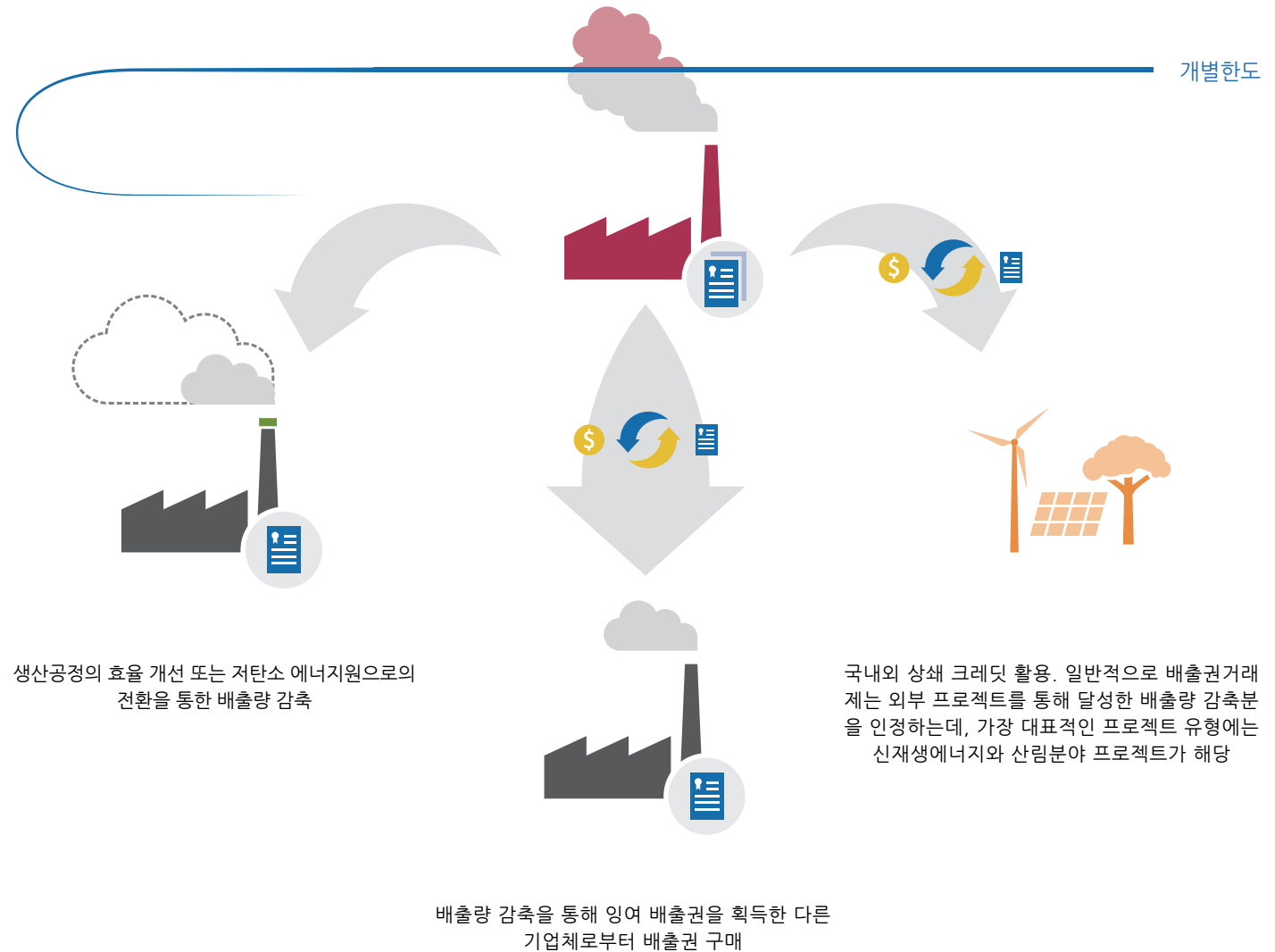
규제대상은 누구인가?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부문과 규제대상 온실가스를 결정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광범위한 주체가 참여하고 다양한 온실가스가 포함될수록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출량의 측정이나 추적이 어렵거나,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함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대부분은 발전 및 산업부문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CO2)를 배출권거래제 대상물질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외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프로온가스(SF6, HFCs, PFCs) 등이 규제대상물질에 포함된다.



기업은 어떻게 배출량을 관리하나?

이행기간 마지막 연도(예를 들어, 일 년)에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체는 각자의 배출량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배출권거래제의 환경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체는 각자의 배출량을 모니터해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는 제3의 독립기관에 의해 그 정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기업체의 배출권거래제 규제 준수를 위해 때로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자간의 배출권 거래는 등록부를 통해 추적·관리된다. 또한 배출권 관련 거래사기 및 금융조작 위험에 대비한 공정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 별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다.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 소개: ICAP은 중앙 및 지방정부를 위해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국제포럼입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기술적 논의, 지식 공유 및 역량 강화를 주요한 사업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CAP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ICAP 지도](#) 또는 [ICAP 트위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